

#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 430

2020.12.27

송년호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 오늘의 말씀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5절

###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함즐함울 특집 “생각하여 보라”
- 3면    교회 소식, 총회 소식
- 4면    사역 소식
- 5면    목회칼럼
- 6면    신앙 간증, 기독교 용어
- 7면    송년 후기
- 8면    공동체 소식

### 교회일정

- 12/31(목)    송구영신예배
- 1/3(주일)    신년감사주일
- 1/4~9(월~토)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잠시 멈춘다고 하여 길 잃은 것은 아니다, 안녕 2020!

함줄함울 2020 캠페인 “생각하여 보라”

## 시간을 생각하다

여덟 번째를 맞은 “주님의 서재”에서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 세 권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직업, 여행, 배움, 사랑, 믿음, 헌금, 가정, 기도, 거룩 등을 주제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들에 대하여 공동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책, 또는 새로운 주제, 좋은 책 한 구절 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 계획에 넣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독후감도 보내주세요! “책 읽어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연재글입니다. 이번 호에는 ‘삶의 적용’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함줄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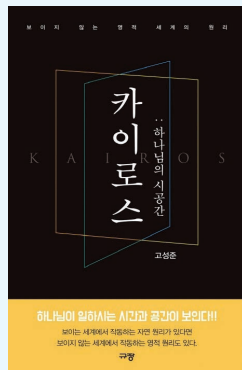
주님의 서재⑧ 시간을 생각하다

###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접한 ‘집콕, 언택트, 잠시 멈춤, 펜데믹’ 등의 단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2020년의 시간은 코로나19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는 크로노스(χρονος)와, 카이로스(καιρος)입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때)”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듯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올 한해가 크로노스로 마치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 머무르고 하늘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카이로스 : 하나님의 시공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원리〉고성준, 규장, 2020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보인다. 자연 세계의 원리가 있다면, 영적 세계에도 원리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시공간 : 카이로스〉는 고린도전서를 기초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기술하며 하나님의 시공간은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재하며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가 자연 세계의 원리를 배우고 경험해온 것처럼 영적 세계의 원리와 질서 또한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 영혼육의 관계, 영의 원리 등을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알고, 실재하는 영적 세계를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비대면의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지식을 얻기 원하는 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



〈하나님의 시간을 걷다 : 보통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이요셉, 토기장이, 2020

하나님의 시간을 걷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위로. “평범한 보통의 날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지루한 일상을 견디며 걸어야 할 때가 있다. 한숨 섞인 기도를 내뱉으며 걸어야 할 때가 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주저하며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저자는 그런 시간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애써 힘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가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그저 옆에 있어 주며, 적어도 ‘오늘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다독인다. 주님과 시간은 인격적이기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마음뿐 아니라 능력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는 그 하루가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줄 거라고 위로한다. 보통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만들어 간 저자의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 :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당신을 위한 묵상집〉햇살콩(김나단, 김연선), 규장, 2019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신다는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현실에 낙심할 때가 많다. 그러면 탄식과 기대가 함께 섞인 기도를 드리게 된다. “주님,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고 싶을 때, 기다림에 지쳐갈 때, 내 연약함을 마주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인 햇살콩 부부는 이렇게 물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말한다. 누구보다 주님이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고, 이들 부부 역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네 옆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내가 있단다. 너는 안전하단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책 읽어주는 부모⑧ 삶의 적용

### 부모가 주는 최고의 선물

아이가 다 자란 뒤 아이를 키우며 느낀 소회를 책으로 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웠다’라며 어떤 분은 나름 성공의 스토리를, 어떤 분은 반성의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어머니가 딸에게 어릴 때는 미처 해주지 못했던 말들을 늦게나마 해주는 책도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여기태 교수도 해외 체류 기간을 거치며 자녀교육에 무지함을 깨닫고, 몸으로 깨달은 아빠의 지혜를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살면서 아이가 힘든 순간에 아빠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아빠의 가르침을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힘든 순간 아빠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려면 우선은 자녀에게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힘이 되는 목소리여야 하고, 아이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아빠가 삶으로 경험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주면 자연스럽게 아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로 들은 책의 한 구절이 아이의 기억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됩니다. 책을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책 속에 담긴 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아빠만 책을 읽어주고 삶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라면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하든지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책을 읽고 그 내용으로 이런저런 질문과 답을 하며 부모는 아이에게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천로역정을 매일 조금씩 나누어 읽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은 없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읽어주면서도 동화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야기를 읽어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어주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부모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 세계에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글이 삶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책만 읽어주는 것을 넘어 책 속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읽어주세요. 부모가 알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회 소식

# 2021년부터 주일 예배시간 바뀐다

30분씩 앞당겨지고, 청년부 예배 2시 30분 분당에서

주님의교회 주일 예배시간이 변경된다. 2021년 첫 주일부터 예배시간이 각각 30분씩 당겨져서 1부 예배는 7시에 시작한다. 앞당겨진 시간에 맞추어, 오후 2시 30분에는 예배 공간이 부족했던 청년부 예배를 분당에서 드리게 된다. 이는 그동안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렸던 중예배실 수용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제한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청년부를 수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주일 예배 외의 수요예배, 새벽예배, 어와나, 아기정원 등 다른 예배와 집회의 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함글함글

2021년부터 바뀌는 주일 예배 시간

| 예배                                             | 2020년                   | 2021년           |
|------------------------------------------------|-------------------------|-----------------|
| 1부                                             | 오전 7:30, 대예배실           | 오전 7:00, 대예배실   |
| 2부                                             | 오전 9:30, 대예배실           | 오전 9:00, 대예배실   |
| 3부                                             | 오전 11:30, 대예배실          | 오전 11:00, 대예배실  |
| 4부                                             | 오후 2:00, 대예배실           | 오후 1:00, 대예배실   |
| 청년부                                            | 오후 1:30, 중예배실           | 오후 2:30, 대예배실   |
| 유아숲 · 유소년숲 1부<br>(영아 · 유아 · 유치 · 유년 · 초등 · 소년) | 오전 9:30, 각 예배실          | 오전 9:00, 각 예배실  |
| 유아숲 · 유소년숲 2부<br>(영아 · 유아 · 유치 · 유년 · 초등 · 소년) | 오전 11:00, 각 예배실         | 오전 11:00, 각 예배실 |
| 청소년 숲(중등부 · 고등부)                               | 오전 9:30, 각 예배실          | 오전 9:00, 각 예배실  |
| EM, 어린이영어예배                                    | 오전 11:00, 제1집회실 / 각 예배실 | 오전 11:00, 각 예배실 |
| 에바다                                            | 오전 11:00, 제1집회실         | 오전 10:30, 제1집회실 |
| 사랑나무                                           | 오전 11:30, 사랑나무실         | 오전 11:00, 사랑나무실 |

사역 소식 | 군경선교팀

## 군장병에게 성탄 선물 배송

군경선교팀에서는 2020년 12월 16일, 국방을 위해 수고하는 군장병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다. 군경선교팀에서 매년 연말이면 진중세례식 지원한 전 방부대 군장병들과 주님의교회 군자녀들에게 위문품을 보내온 바 있다. 금년 연말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태에 몇몇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겨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어 교회에서 위문품을 포장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군자녀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내무반의 선후배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을 생각하여 비대면으로 성탄 선물을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군경선교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군자녀 기도회 어머니 몇 분과 군경선교팀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 카드와 선물을 듬뿍 담아 50명 분을 포장해서 발송했다. 군자녀 어머니들은 선물 포장을 하며 작은 성탄 선물이 장병들에게 잊혀졌던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선물로

총회 소식 | 한국기독교공보

## 한국기독교공보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검색과 열람 가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의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모든 신문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한국기독교공보 디지털 아카이브>가 2020년 11월 25일에 오픈되었다. <한국기독교공보 디지털 아카이브>는 세로쓰기, 한문혼용, 지질훼손 등으로 판독이 어려운 1946년 창간호부터 최신 신문까지의 모두 신문을 검색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한 것으로, 독자들은 총 4만여 쪽에 달하는 한국교회 역사를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공보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독교 신문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데이터 서비스로, 종이신문 구독자는 아카이브 사이트 회원가입 시

지로나 우편물 주소라벨에 표기돼 있는 독자번호를 입력하면 승인절차를 거쳐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교회명으로 구독하는 경우는 담임목사 명의로 회원가입 후 독자번호를 입력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경우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상에서 이용권을 결제하면 아카이브만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문서선교 수혜 대상에 포함돼 종이신문을 무료 구독중인 독자도 이용권을 유료 결제해야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공보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archives.or.kr (또는 http://아카이브.com)'를 입력하면 가능하다.

함글함글



추억이 되고 웃음과 기쁨이 있는 작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2020년도에도

정성스레 성탄 선물을 만들어 보낼 수 있게 해주셨음에 주님께 감사드렸다.

함글함글

## 교회 소식

## 노년층 위한 교육과정 “꿈꾸는 시니어”개발

2020년 11월 17일, 주님의교회에서는 주님의교회가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완료보고회가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주님의교회가 위탁한 이번 연구 결과, 한국 교회는 노인에게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노인교육의 방향과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총 2단원 16주에 이르는 노년층 교재와 교사용 지침서가 제시되었고, 스텝경건회, 환대하기, 몸 활동 등의 공통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번의 연구개발보고서를 바탕으로 주님의교회 부티풀페어런팅센터는 2021년중에 교회의 규모와 사정에 맞는 “꿈꾸는 시니어”(가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규모와 방식,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함줄함울

## 정신학원 소식

## 정신여고 사랑의 털모자 전달식



2020년 12월 18일, 정신여고 최성이 교장, 주님의교회 김하수 담임목사, (사)섬김과나눔 조병길 장로와 학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정신여고 학생들이 뜨개질로 만든 사랑의 털모자

전달식이 있었다. 기증받은 사랑의 털모자는 제8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에 후원되고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되며, 아프리카 신생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함줄함울

## 섬김과나눔 소식

## 제8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섬김과나눔에서는 2020년 12월 13(주일)부터 27일(주일)까지, 성탄절 전후 3주간 동안 주님의교회 1층 로비에서 제8회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 섬김과나눔이 주관하고, 주님의교회 남천선교회·안수집사회·권사회·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후원하며, 세이브더칠드런·기아대책·국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협력으로 펼쳐졌으며, “생명사랑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와 “이웃사랑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 모

금”으로 진행되었다. “생명사랑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는 주님의교회 1층 로비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전시대를 설치하여 사랑의 털모자를 전시했다. 사랑의 털모자는 늘푸른대학 학생, 사랑의 털모자 뜨기 후원자 및 정신여고 학년 학생이 제작, 후원했다. 전시회 후 사랑의 털모자는 세이브더칠드런, 호스피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함줄함울

## 섬김과나눔 소식

## 무의탁 어르신 생활 지원팀 성탄 선물 전달



무의탁어르신 생활지원팀에서는 2020년 12월 21일 송파구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등 무의탁 무연고 어르신 80여 명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무의탁 어르신에 대한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0명의 봉사자가 5개 조로 편성이 되어 봉사하고 있으며, 지난 11년 동안에 걸쳐 45,424명을 지원했다. 한편, 매주 화·수요일 주 2회 독거

(무의탁, 무연고) 어르신 및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던 독거 노인 무료급식은 2020 11월 4일로 종료되었다. 2011년 1월 가락동 시영아파트 경로당에서 시작하여, 마천동 남천경로당으로 옮겨 2019년 12월까지 9년간 총 65,272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했으나 안타깝게도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함줄함울

## 학생 간증 | 정신여고

## 생명을 살리는 귀한 모자

처음에 모자 뜨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는 뜨개질 하는 법조차 알지 못해 그저 막막하기만 했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만 하자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막상 뜨개질하는 법을 배우고 모자 뜨기를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재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뜨는 모자가 신생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모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드시 모자 뜨기를 완료해 내겠다는 책임감도 들었다. 뜨개질에 익숙하지 않아서 툴 친구들도, 이미 뜨개질을 여러 번 해봐서 익숙한 친구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모자를 열심히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잘하는 친구들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메꾸고, 잘하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나서서 못하는 친구들의 모자 뜨기를 도와줬다. 단순히 모자를 기부하는 행동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협동의 정신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행평가 점수, 모자 기부를 넘어서서 친구의 어려움, 본인

안에 있던 배려정신까지 일깨워 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비록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협동심과 배려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자를 완성해준 친구들이 많았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된 모자들을 보니,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한 마음과 뿌듯함이 차올랐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모자들을 쓰고 따듯하게 겨울을 날 아이들을 생각하니 행복해졌다. 아마 우리가 열심히 만든 모자들이 쌓여있는 광경을 보면, 모자 뜨기가 힘들었다고 투정 부렸던 친구들도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학교에서 매년 모자뜨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좋은 전통이 우리 대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우리 학교, 정신여고에 올 모든 친구들이 이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서 보다 많은 신생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현지 / 정신여고

목회 칼럼

#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요즘 저는 새벽 조깅기도중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밤이 다하고 새벽이 시작 되는 길목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늘 정답입니다. 새벽에 걷고 뛰기를 반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날의 낯선 것을 미리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 뻔한 하루의 방향을 억지로 돌려놓습니다. 새벽 시간의 묵상을 통해서 결국 내 인생이 나의 힘으로 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 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이길 힘을 구하고 피할 길을 구합니다. 다가올 하루의 전쟁에 맞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의 새벽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밀월을 경험하는 영적 조율의 귀한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의 시간이 하루를 견디는 동력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새벽기도가 공식적으로 시작 하게 된 시기를 1906년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예수님도 새벽기도 했는데 우리도 새벽기도 합시다.” 라고 말씀하신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라고 말합니 다. 사실 그 이듬해인 1907년 평양 부흥의 역사는 1906년 길선주 목사님께서 시작한 새벽기도의 영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홍해가 갈라진 시간 도, 그리고 부활의 시간 역시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5/새번역]

그는 분노와 공포로 떨었을 밤에도 곤하게 잠들었고 아침에도 거뜰히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배짱은

주께서 붙드신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고단한 삶을 살아갔지만 곤한 잠에서 깨어난 아침의 은혜와 평강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숙면 비결은 바로 부르짖어 말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 공급되는 것이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 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던 하나님의 만나 공 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가능 했습니다.

**다윗의 배짱은  
주께서 붙드신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고단한 삶을 살아갔지만  
곤한 잠에서 깨어난 아침의  
은혜와 평강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의 뜻처럼 영광의 시작(始榮)을 소망하며 새벽의 고 단함을 넘어 새벽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해 봅 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전날 잠자리에 들으라고 하셨던 담임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리라 다짐 해 봅니다. 오늘 새벽도 다시 운동화 끈을 묶으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 을 걱정선을 그어놓고 기도하던 나의 기도의 모습 을 교정해 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던 새벽기도회 주보 광고 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드립니다.’로 바뀌었 지만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하는 것은 헛수고일 때가 많기에 우리는 먼저 하 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 서 하루의 최선은 새벽기도로 시작하는 것임을 다 시 되새겨 봅니다.

2021년 새해에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님 모두 에게도 새벽의 은혜와 굿모닝의 축복이 함께 하시 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벽은 언제나 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늘 웁습니다.

한시영 목사

교회 소식

## 2021년도 교회 탁상달력 배포

2021년도 주님의교회 탁상달력이 지난 22일 제작 을 마치고 입고되었다. 이번 달력의 주제는 2021년 도 교회 표어인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이며, 그림 면에는 매월마다 주제에 적합한 성구를 홍보출판 부에서 선정한 후, 이 성구를 송영주 집사(8교구)가 캘리그라피로 써서 넣었다.

교회 탁상 달력은 가로 26cm, 세로 22cm크기이며, 삼각대 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 매월 1장씩으로 구

성되며 글자판에는 국가 기념일과 함께 주님의교 회 목회일정이 수록되어 있다.

2021년도 탁상 달력은 모두 3,500부가 제작되었으 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성경필사> 신 청자에게 달력을 포함 택배로 배포하고, 나머지는 1층 출입문쪽에 비치하여 가정당 1부씩 배포한다.

함줄함줄



신앙 간증

## 소원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올해 하반기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오피스 불을 끄고 문을 나서는데 새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람이 떴습니다. 마침 기다리고 있던 업무관련 답장이 있어 가던 길을 멈추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그곳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메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You’ve been selected for this year’s Poets & Quants Top 50 Undergraduate Business Professors of 2020. Congrats!” 미국의 유명 MBA 전문지 ‘포에츠 앤드 퀀츠’(Poets & Quants)가 뽑은 세계 최고 경영대 교수 50인 중 한 명으로 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차 ‘초보’교수인 제가 감히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 주변만 둘러봐도 저보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이것은 제가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신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꽤 괜찮은 교수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외국인 신분의 동양인 여교수로서 저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선 늘 남보다 더 열심히, 월등하게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젠 저를 입증해줄 든든한 ‘마패’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도전의 순간들을 조금은 덜 힘들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안도감도 들었구요. 하지만 이런 세속적 달콤함과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허락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제가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웬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절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어릴 적부터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새로운 시도를 즐겼던 저는 대학에서 전공도 수 차례 바꿀 정도로 모험심 강한 (또는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거의 유일하게 꿈꿔보지 않은 직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교직이었습니다. 대학에 계신 부모님 덕분에 누굴 가르친다는 (teaching) 일이 익숙했지만 결코 저를 설레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야심 차게 ‘마이웨이’를 가려던 저에게 쓰라린 실패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두드리던 진로의 문들이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모두 닫혀버렸고, 저는 얼떨결에 (경영학과는 관계없는)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떨어진 느낌이었지만 저는 곧 석사논문을 쓰며 연구라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만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서의 경영의 역할을 논하면서 인류의 화합과 화해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경영적 요소들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영학도로서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뒤돌아 보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장막

을 치시고 저를 부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방법으로 저에게 학문에 대한 ‘소원’을 두게 하셨고 또 ‘행하게’하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잠언 16:9).

6년간의 경영학 박사과정은 저로 하여금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매일 마주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워싱턴대학교 경영대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을 때에도 저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소원으로 두게 하신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현재 교수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티칭(teaching)이 아주 재밌지는 않습니다. 무대를 즐기는 성격이라 매번 교단에서 즐거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라고 제 자신을 다독이곤 하죠. 하지만 티칭이란 매개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를 가슴 뛰게 합니다. 워싱턴대학이 쿼터제를 따르고 있는지라 석달에 한 번씩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학기초에 1:1 미팅을 의무화했습니다.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그들에게 필요한 배움을 전달하고 교실 밖에서의 삶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학생들과 설교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저의 삶의 간증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 마음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교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박사과정을 시작하던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를 교구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음을 주셨었는데, 워싱턴대학의 특성상 정말 다양한 국가와 환경에서 온 학생들과 또 동료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어찌나 감사한지요.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코로나 이전의 삶에선 밤늦게 퇴근할 때마다 대자연에 둘러싸인 텅 빈 캠퍼스와 셀 수없이 쏟아지는 별들이 저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지독히 아름다운 미국 북서부의 광활함은 때론 저를 고독하게도 했지요. 저의 숨은 노력과 학생들에 대한 진심을 그 누가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절대 섭섭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 높이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참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것 하나 없으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의 약함 가운데서 강함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고후 12:9). 스스로의 연약함을 끝없이 마주하게 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미래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세상적 ‘마패’를 쫓아 달려가는 삶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민감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가장 특별한 순간들이니까요.

성소라 성도 / 4교구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gt; 예배, 예식용어 편 8

## ‘축제’라는 말은 일본이 만든 신조어였다

축제 (X), 잔치 (O)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축제’를 “축하하고 제사지냄”이라고 단순하게 풀이하여 실어 놓았으나 이가원과 임창순의 <동아한한중사전(亞漢韓中辭典)>에서는 “축제란 제사 이름이니, 묘문(廟門) 안과 밖에서 이들에 걸쳐서 드리는 묘문 제로서 조상을 사당 안에서 제사지내고, 그 다음날 사당 밖에서 지내는 제사이다”라고 정의해 놓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마을 제사를 영어의 ‘celebration’과 ‘festival’같은 축하행사를 보면서 자신들이 제사에서 마음 놓고 떠들고 소리 지르면서 춤추는 고유한 행사와 모양새가 비슷함을 알고, 1928년에 ‘축제’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그들의 사전에 도입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축제의 문제점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대로 잔치, 또는 때에 따라 절기행사, 축하행사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성경 축제 > 성경 잔치, 부활절 축제 > 부활절 절기 행사, 성탄 축제 > 성탄 축하 행사 등이다. 참고로 <공동번역성서>에서는 57회, <표준 새번역>에서는 13회에 걸쳐 무분별하게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울 정리

함줄함울팀 송년 후기

## 코로나19로 얼룩진 한해, 미처 못다 한 말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단어가 일상어로 바뀌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뜻하던 ‘마스크’가 모두의 표정을 가리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터,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지 <함줄함울> 기자들의 소회를 담았습니다. (가나다 순)

함줄함울

### 교회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올해 1월 청년부 대표로 함줄함울 팀에 합류하여 설렘과 조금의 긴장감을 가지고 2020년 첫 회의에 참석했었다. 그것이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될 줄은 그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면 모두 금기시되었고, 매주 교회와 학교를 향해 가던 내 모습은 더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적이던 교회가 고요해지고, 예정되어 있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 발행 일에 가까워지면 시골벽적해지는 함줄함울 팀 카카오톡 단톡방과 홈페이지에 꾸준히 올라오는 <함줄함울>을 보며 ‘교회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되는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구나’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쩡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한 해였지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소식이 들리는 교회가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함줄함울의 팀원인 것이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었다.

강현서 기자

###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2월 마지막 주일부터 교회학교의 각 부서실은 텅 비어졌다. 토요일과 주일이면 왁자지껄했던 아이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매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 온라인 노출에 대한 피로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도 유튜브 키즈 채널처럼 여겨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도 있다. 그래서 예배영상을 담은 카메라 앞에 설 때 마다 함께 예배드릴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시행한 지도 이제 10개월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온라인 예배에 많이 익숙해진 아이들도 있고, 아직도 예배영상을 세상의 미디어영상처럼 여기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온라인 예배를 보는 시청자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비록 예배의 처소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졌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올 한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언택트 교회교육 활동에 전심으로 합력해 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가정의 신앙교사로 함께 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김오정 기자

### 모든 육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꽃과 같으니

20년을 다녔던 교회 상례팀 코로나 확진 환자가 1,000명이 넘는 날 상례 위로 예배가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상례팀과 함께 위로 찬양도 부르고 유가족들과 함께 위로의 시간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찬송도 못 부르고 찬송 가사만 읽으며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가족 빼고는 목사님과 저와 한 분의 집사님 셋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에 기독교 탄압으로 북한에서 찬송도 못 부르고 어두운 전통아래에서 찬송가 가사만 읽으셨다던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를 조용히 읽으면서 눈물로 났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뵙니다. 코로나가 빨리 멈추어 모든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하면서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신 말씀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해주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신형섭 기자

### 새삼 깨우친 소중하고 귀한 우리들의 일상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는 올해는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일상들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된 한해입니다. 재택근무와 가정학습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함줄함울>을 통해 책 읽어주는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어떻게 키워주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분들과

기독교교육 관련 책을 읽으며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교회의 표어에 맞게 각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신앙교사로서의 부모, 가족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을 <함줄함울>을 통해 나누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어진원 기자

### 세상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며 동시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곳이다. 코로나19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드러나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적 사명을 유연하고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교회를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2020년 한국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까. 한 설문기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 교회가 2021년에는 세상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경수 담임목사

### 시공간을 초월한 예배

코로나19로 올 한해 교회를 지척에 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할 때마다 항상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은 중에 가장 큰 결핍은 교회였습니다. 사역자, 말씀, 장소, 공동체 등 여러 가지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살았던 인도에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과 가족들께 너무나 헌신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이 오지라서 목사님들이 지원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인터넷도 잘 안되던 시절 한국에서 공수한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예배를 드려서 담임목사님이 너무 귀하셔서 감사함의 섬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방 여러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드릴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전해주셔서 열악한 지역이라 불편했던 마음이 예배를 드릴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주님의교회를 다니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은 건물, 좋은 말씀, 좋은 공동체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 완벽함에 대해 감사가 사라질 무렵 코로나19로 교회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전성터도 아니고 오지도 아닌데, 많은 교회 활동으로 두 손 가득 하나님께 복달라는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이제 난 빈손입니다. 이 상상도 못할 상황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정은 기자

### 신발 끈 다시 조여 매는 시간

“자신의 고향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초보자이다. 모든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강인한 자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타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자이다. 미숙한 영혼의 소유자는 그 자신의 사랑을 세계 속 특정한 하나의 장소에 고정시킨다. 강인한 자는 그의 사랑을 모든 장소에 미치고자 한다. 완벽한 자는 그 자신의 장소를 없애버린다. 완벽한 독서를 희망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국의 땅이 되어야 한다. 시인은 노래한다. “나는 모른다. 도대체 어떤 감미로움이 사람을 고향으로 이끌어가는가? 그리고 고향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 현명한 사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향에 이별을 고향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중세 신학자였던 위그 드 생 빅토르의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익숙했던 많은 것에 거리를 두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올 새날 맞아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느슨해진 신발 끈 단단히 조여 맵니다.

장경식 기자

## 간증 시편

## 성 루카 호스피스 병동에서

여보, 외손녀 다정이의 기도를 들어봐요.  
 “할머니 내가 기다릴게  
 할머니 내가 기도할게  
 할머니 빨리 나아와 돼”

부인의 가물거리는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서유럽으로 남미 8개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자연을  
 당신이 말했던 감격스러움을  
 기억해 봐요.

마추피추 봉우리 등반  
 우유니 소금사막  
 이과수 폭포  
 우수아이아에서 배를 타고  
 펭귄들이 살고 있는 섬을  
 가보았던 기억을 생각해 봐요.

직장의 일을 핑계로 바쁘게 내가  
 돌아다닐 때 당신의 조언을 새겨듣지  
 않고 무시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동안 나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었던 당신, 나의 반쪽  
 영원히 사랑합니다. 잘 가시오.  
 안녕

- 2020년 11월 20일 13시 15분

## 카드

당신이 보낸 카드  
 광주리엔  
 봄빛이 그득하외다.

八년전 그 날  
 그대의 미소가  
 이젠  
 꽃으로 피어 활짝 웃고 있구려.

노란 꽃은  
 주완(周完)이처럼 씩 웃고  
 분홍 꽃은  
 의정(宜廷)이 같이 방긋거리고

당신이 보낸 카드  
 광주리엔  
 사랑이 충만하외다.

- 1981년 리야드에서

고연호 집사 / 2교구

고연호 집사의 부인 안순옥 권사께서 지난 2020년 11월 20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영원한 평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공동체 소식

## 전혜영 은퇴권사 옥천봉사대상 수상



2020년 12월 11일 각당복지재단 창립 34주년 기념예배에서 전혜영 은퇴권사가 옥천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옥천 봉사상은 자원봉사정신을 개발하고 사랑나눔을 통해 작은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각당복지재단에서 2001년에 제정된 상이다.

전혜영 봉사자는 1995년에 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 자원봉사자교육을 12기로 수료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 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경찰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해 무지개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돌봄을 시작할 수 있게 했으며 이후 서초요양병원과 시각장애인 시설인 루디아의 집 등 새롭게 봉사를 시작하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 호스피스 봉사의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하는데 큰 리더십을 발휘했다. 2015년 국립의료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개원할 때에도 수요팀 팀장을 맡았으며, 독거노인이나 환우들을 보살피는 가정호스피스로 섬겼다. 2019년부터는 마천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에서 미술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

함글함글

## 알립니다

## 1. 송구영신예배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오후 11시

## 2.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 2021년 1/4(월) ~ 9(토)

(정부방역수칙준수 /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로 드립니다.)

주제 : “나는 예배자입니다.”

## 3.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신청’

신청기간 : 2020년 12월 20일(주일) ~ 31일(목)

신청방법 : 구글신청서 (문자나 카톡으로 링크 발송)

\* 특새 기간 중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합니다.

문의 : 각 부서 담당교역자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